

- 주요 뉴스: 미국 11월 실업률, 4년 만에 최고 10월 소매판매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
 - 예측 플랫폼 Kalshi,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제시
 - 유로존 12월 HCOB 종합 PMI, 예상치 하회. 독일 12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상승
 - 중국 건설당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효과적 규제 통해 시장 안정 도모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1월 실업률 상승 및 고용 부진 우려 등이 영향

주가 하락[-0.2%], 달러화 약세[-0.1%],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11월 실업률 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방산 및 에너지 관련주 약세 등으로 0.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주요 국채금리의 하락 등으로 내림세 지속
유로화 가치는 0.1% 하락, 엔화 가치는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0월 및 11월 고용보고서 결과 반영하며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1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72.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74.7원, 0.16% 하락). 한국 CDS 강보합

주요지표					주요지표				
		12/16일	12/15일	전일대비			12/16일	12/1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00.3	6,816.5	-0.24%	국채금리 10y	미국	4.15%	4.17%	-3bp
	유럽	579.80	582.54	-0.47%		독일	2.85%	2.85%	-1bp
	중국	3,824.8	3,867.9	-1.11%		영국	4.52%	4.50%	+2bp
	일본	49,383	50,168	-1.56%	CDS 5y	한국	22bp	22bp	+0bp
	한국	3,999.1	4,090.6	-2.24%		중국	43bp	43bp	-0bp
	달러지수	98.21	98.31	-0.11%	위험지표	EMBI+	-	267	-
유로화	1.1747	1.1753	-0.05%	VIX		16.48	16.50	-0.12%	
환율	엔화	154.72	155.23	+0.33%		WTI유	55.27	56.82	-2.73%
	위안화	7.0426	7.0480	+0.08%	원자재	구리	527.8	533.9	-1.13%
	원화	1,477.0	1,471.0	-0.41%		금	4,302.3	4,305.0	-0.0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1월 실업률, 4년 만에 최고, 10월 소매판매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

- 비농업 신규 일자리는 10월에 전월비 10.5만건 감소했고, 이는 섯다운에 따른 정부 부문의 큰 폭 감소(-16.2만건) 등에 기인. 실업률은 섯다운 여파로 누락. 11월의 경우 정부 부문의 감소 규모(-6천건)가 크게 줄어들면서 6.4만건 증가로 전환. 다만 실업률의 경우 4.6%로 `21년 9월 이후 최고
- 1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비 0.1% 상승, 10월(0.4%)에 비해 둔화되었고,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3.5% 상승. 이는 `21년 5월 이후 최저. 이번 결과는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라는 일부 주장을 정당화
- 시장에서는 섯다운의 영향 및 그로 인한 데이터에 대한 의구심 등을 고려할 경우 이번 결과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주장(Goldman Sachs).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발표로 고용 부진이 확인되었고, 이는 12월 금리인하 결정을 정당화시킨다고 평가. 그러나 향후 큰 폭의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진단(Brandywine Global)
- 한편, 10월 소매판매는 7326억달러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다만 컨트롤 그룹(변동성이 큰 자동차, 주요소, 건축 자재, 음식 서비스 제외)의 경우 전월에 비해 0.8% 증가. 이번 결과는 높은 생활비 여파로 전반적인 소비를 줄이면서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의 매입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시장에서는 노동시장 회복이 동반되지 않으면, 관련 영향으로 소비지출 또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WSJ). 한편, 이번 11월 실업률 상승과 전반적인 고용 부진에도 CME의 FedWatch는 계속해서 내년 2회의 금리인하(4월과 7월, 각 0.25%p)를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예측 플랫폼 Kalshi,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제시

- Kalshi는 워시 전 연준 이사의 차기 의장 지명 가능성이 46%로 해식 국가경제위원장(39%)에 비해 높다고 제시. 한편 이날 해식 위원장은 통화정책이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결정되어야 한다며 연준의 독립성 강조. 이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시장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추정

■ 미국 달러스 연은, 연방기금금리의 광범위한 차입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감소

- 달러스 연은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연방기금금리 변동이 광범위한 차입 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근 수개월 동안 감소했다고 평가. 반면 3자간 일반 담보금리(TGCR)가 통화정책 전달 수단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 '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양적완화 등으로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은행 간 지급준비금 대출에 적용되는 연방기금금리의 영향력은 축소

■ Bridgewater, AI 투자 붐은 위험한 단계. Citi는 내년 S&P500지수 7700 예상

- 헤지펀드 Bridgewater Associates의 그렉 젠슨은 AI 투자 붐이 위험 단계라고 지적. 특히 빅테크의 AI 비용이 현금 흐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외부 자금조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한편, Citi는 양호한 기업이익, AI 관련 투자 붐의 지속 등으로 내년 S&P500지수는 7700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

■ 유로존 12월 HCOB 종합 PMI, 예상치 하회. 독일 12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상승

- 4월 HCOB 종합 PMI는 51.9을 기록, 전월(52.4) 및 예상치(52.5) 하회. 부문별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 모두 하락(각각 48.2→47.7, 53.1→52.6). 주요국 가운데 독일이 특히 부진(52.4→51.5)
- 다만 독일의 12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45.8로 예상치(38.5) 상회. 이는 경제가 정체 국면을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 한편, 영국의 8~10월 실업률은 5.1%로 7~9월의 5.0%에서 상승. 이에 영란은행이 18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 증가

■ 중국 건설당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효과적 규제 통해 시장 안정 도모할 방침

-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신문 기고를 통해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규모 부채·과도한 레버리지 및 자금 회전 등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또한 투자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17일 현지시각 기준)

- 연준 월러 이사 및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발언
-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 영국 11월 소비자물가, 독일 12월 Ifo 경기기대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소,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 - 블룸버그

(The Federal Deficit is shrinking. Can that last?)

-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최근 12개월 기준 5,160억 달러 감소. 지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이 8.5% 증가했는데, 이는 증시 호조와 고소득층 위주의 개인소득세 증가에 기인. 최근 관세 수입이 급증했지만, 대법원 위법 판결 전망과 수입을 제한하는 관세의 본질적 효과 감안 시 확대 여지는 제한적
- 반면 개인소득세는 소득, 금융시장 성과와 밀접히 연동되는데,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소득세 수입이 증가. 따라서 향후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기업 R&D 세제 혜택 축소 영향도 내년에는 본격화될 전망. 최근 재정 개선은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 지속 여부는 불확실

■ 미국 금융시스템, 레버리지 증가 및 측정 어려운 차입 투자의 위험 내재 - Financial Times

(How leveraged is the financial system?)

- 연준의 단기국채매입을 통한 준비금 관리(RMP)와 양적완화(QE)는 모두 정기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주장이 제기. 다만, 이는 시장에서 레버리지가 과도하여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가정을 동반. 이에 금융시스템에서 레버리지 상황을 살펴볼 필요
- 첫째, 대규모 레포 대출(매일 약 3조달러 규모이며 3년 전의 3배 수준). 둘째, 급증한 마진 부채(증권 매입을 위해 차입한 자금으로 1.2조달러 규모, 3년 전보다 90% 증가). 셋째, 헤지펀드의 대규모 차입(레포 제외 3.7조달러 규모, 3년 간 65% 증가). 추적이 어려운 파생상품 익스포저까지 추가한다면 금융시스템은 위기 도래 시 취약할 소지

■ 일본은행, 인플레이션 안정과 대규모 재정적자 대응이라는 상반된 요구에 직면 - 블룸버그

(BOJ Confronts a Challenging Year Ahead Amid Conflicting Demands)

- 이번 주 일본은행은 금리를 인상(0.5→0.75%)할 것으로 예상. 또한,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위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도 부각되는 상황. 이는 막대한 재정적자에 직면한 일본 정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 제어와 차입 비용 부담 축소라는, 상충되는 이중 부담에 직면.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저금리 기조 선호를 고려한다면, 금리인상 속도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며, 환율 영향으로 과도한 긴축의 위험도 존재한다고 평가(BNP Paribas)

■ **미국 트럼프의 은행대출 규제 완화, 과거의 대출 손실 재현될 우려 - Financial Times**

(US banks win back right to lend more than they should)

- 당국은 '13년 이래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대비 6배를 초과하는 은행의 대출 거래를 제한. 이에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조달 부문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비중이 점차 확대. 하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심각한 경기침체 발생 전까지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
- 이러한 가운데 최근 당국은 사모펀드 인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은행이 간접적으로 대출 부문에서 더 많은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이는 수익성 제고 및 안정적인 인수합병을 저해한다는 은행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 다만, 과거 금융위기 시기에 대출 관련 손실이 증가했는데, 향후 위기 국면에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요구

■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과도한 親트럼프 인사 지명 시 어려울 소지 - Financial Times**

(Inflation risk)

■ **연준, 적합한 통화정책을 위해 빠른 시일 내 더 명확한 고용 데이터 필요 - 블룸버그**

(The Fed Needs Clearer Jobs Data, ASAP)

■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높은 주식 비중, 시장 추세 전환 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 - Financial Times**

(Bullish investors pile into stocks as cash levels sink to record low)

■ **'25년 美中 무역전쟁, 기술-에너지안보 분야에서 중국으로 주도권 이동 - Financial Times**

(China's escalation dominance over Tru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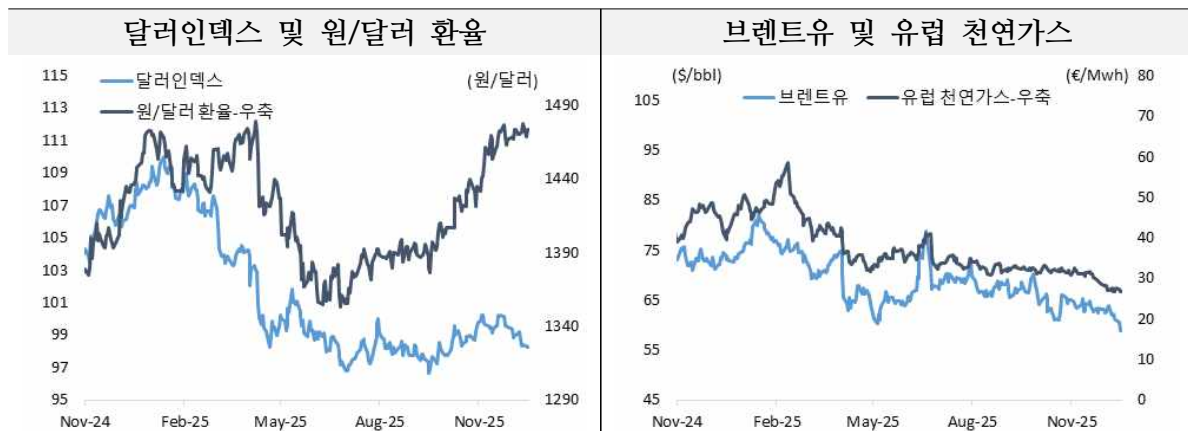
■ **유럽, 고임금·복지체제 유지를 위한 대외계정 개입 불가피 - Financial Times**

(Europe has no choice but to intervene on trad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